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동반 우승한 남녀양궁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남자대표팀(왼쪽사진) 왼쪽부터 임동현·오진혁·이창환 선수. 여자대표팀(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윤옥희·곽예지·주현정 선수. /연합뉴스

한국 양궁 "세계 최강" 재확인

리커브 단체전 남자 5연패, 여자 4연패 달성

女 컴파운드, 러시아에 역전패 은메달 그쳐

한국 남자양궁 대표팀이 막판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세계선수권 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오진혁(농수산홈쇼핑) 이창환(두산중공업) 임동현(청주시청)이 한 팀을 이룬 남자팀은 8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222-220, 두 점차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남자팀은 단체전 5연패에 성공했다.

한국은 3엔드까지 프랑스에 167-165로 앞섰지만, 4엔드 첫 세 발에서 부진해 192-193으로 역전당했다.

그러나 한국은 마지막 3발을 모두 10점 과녁에 꽂아넣으면서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창환은 자신의 순서인 3엔드 5발째를 과녁 정중앙에 설치된 카메라를 깨뜨리며 금메달을 자축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한국이 예상대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주현정(현대모비스), 윤옥희(예천군청), 곽예지(대전체고)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224-209로 가볍게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4연패.

주현정-곽예지-윤옥희가 차례대로 활을 잡은 한국팀은 6발을 쏜 1엔드에 55-54, 한 점 차로 앞섰지만 2엔드에서 113-106으로 7점차로 차이를 벌렸다.

3엔드에서는 점수차는 10점 차로 더 벌어졌다. 한국은 4엔드에서도 편안한 경기운영으로 리드를 내주지 않으면서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여자 컴파운드(양 끝에 도르래가 달린 활) 단체전 결승에서는 서정희(청원군청), 권오향(울산남구청), 석지현(한국체대)으로 구성된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처녀 출전에서 세계랭킹 1위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209-215로 아쉽게 패배했다.

한국은 12발을 쏜 2엔드까지 113-105, 8점 차로 여유있게 앞섰지만 3엔드에서 석지현이 경고를 연거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

결국 3엔드 마지막 선수로 나선 권오향이 시간에 쫓겨 6발째 화살을 과녁 밖으로 날리면서 순식간에 점수가 156-159로 역전돼 패배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두산·삼척시청, 핸드볼 남녀 최강

인천도개公·벽산건설 꺾어

남녀 MVP, 윤경신·정지해

삼척시청이 믿기지 않는 역전극을 펼치며 2009 다이소 핸드볼 슈퍼리그 여자부 챔피언에 올랐다.

남자부에서는 두산이 1,2차전 모두 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삼척시청은 8일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결승 2차전에서 정지해(7골), 우선희(6골)를 앞세워 벽산건설을 29-23, 6골차로 누르고 1차전 열세를 뒤집었다.

1차전에서 20-24로 졌던 삼척시청은 1승1패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차에서 앞서 세미프로리그를 표방하고 출범한 5개월여 장기 레이스의 승자가 됐다.

정규리그 득점왕 정지해는 기자단 투표에서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남자부 두산은 고공 장거리포를 쏘아댄 윤경신(9골)의 활약에 힘입어 인천도시개발공사를 21-17로 물리쳤다.

지난 3월 핸드볼큰잔치에 이어 슈퍼리그에서도 우승한 두산은 오는 10월 전국체전까지 제패하면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휩쓸게 된다.

두산의 거포 윤경신은 핸드볼큰잔치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수선수와 득점왕에 선정돼 독일 무대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국 핸드볼의 간판 스타임을 입증했다.

전날 28-22로 이겨 여유있게 2차전에 나선 두산은 초반부터 윤경신이 포문을 열며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2009 다이소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 챔피언전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두산 선수들이 이상섭 감독을 헹가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위해 쓴소리 마다 않겠다"

박지성 출국 "몸 상태 완벽…영국 가면 많은 경기 뛸 것"

"영국으로 돌아가면 많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소속 팀 내 주전 경쟁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박지성은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프리시즌에 늦게 합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완벽하다"면서 "돌아가면 많은 경기에서 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이어 "경쟁은 어느 팀이나 있고 앞으로 숙제가 될 것"이라면서 "경쟁에 따로 신경을 쓰기보다는 연습장과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성은 또 지난 5일 열린 호주와 평가전에서 3-1 완승을 거둔 것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그는 "저로서는 좋은 평가전이었고 좋은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월드컵에서 싸울 팀은 더 강한 팀이다. 한국도 더 발전해야 한다. 월드컵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만큼 준비를 잘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준비한 점이라든지 감독 전술 이해도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한 뒤 대표팀에 재발탁된 이동국(전북)과 김남일(고베) 등 이른바 '올드 보이'에 대해선 "워낙 기량과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기에 대표팀을 강하게 하고 월드컵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지성은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강'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물론 좋은 경기력으로 호주를 이겼지만 원정경기에서 호주를 이겨야 그러한 평가를 들을 자격이 있다. 아시안컵과 같은 큰 타이틀을 차지해야 누가 이견을 달 수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박지성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주와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이 '반쪽 훈련'을 진행된 것을 보고 "이런 행정에서 축구를 하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던 박지성은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축구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르신생활체육 광주시선수단, 인천으로 출발

11일까지 14개 종목 기량 겨뤄

2009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김창준) 선수단이 9일 오전 9시30분 결단식을 갖고 인천으로 출발한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9일부터 3일간 인천 일원에서 열린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8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축구·배드민턴·탁구·게이트볼·정구·테니스·볼링·생활체조·자전거·국학기공 등 15개 종목에 걸쳐 그간 닦아온 기량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14개 종목에 400여명, 전남은 300여명의 선수단이 각각 참가한다.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실시되는 이 대회에는 만 60세 이상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며, 참가자 제한은 2년으로 규정되었다.

개회식은 9일 오후 삼산월드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특히 '꿈을 향해 으랏차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지는 개막식 행사에는 각종 공연과 시도별 응원 퍼레이드·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중계

9일(수)

▲제45회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개인결승(13 : 30·MBC)

▲2009 프로야구〈LG : 삼성〉(18 : 15·SBS스포츠) 〈SK : KIA〉(18 : 10·KBS n스포츠) 〈히어로즈 : 두산〉(18 : 15·MBC ESPN·Xports)